

Style 조선일보

MARCH 2020
vol.201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GUCCI





중앙에 DEF 및 F-VVS 등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반클리프 아펠의 프라블 글립 펜던트. 산들바람에 춤추는 꽃처럼 경쾌하고 인체학적인 프라블 컬렉션 제품이다. 미리 롤리싱 기법으로 완성한 눈부신 하트 모양 골드 꽃망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1668-1906



12 **BELLE EPOQUE & INSPIRATIONS**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 특히 파리가 전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부각하던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당시 파리는 문학가, 화가, 음악가를 비롯한 모든 문화 예술인이 모여드는 곳이었으며, 아이디어와 영감을 나누는 살롱(salon) 문화를 유행시키며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이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벨 에포크로 불리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1백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그 인기는 '현재진행중'이다. 게다가 단순한 레트로가 아니라 '복고'를 전혀 접해 보지 못한 10, 20대가 과거를 현재의 감성으로 즐기는 '뉴트로' 열풍과 맞물려 벨 에포크 시대의 콘텐츠가 새롭게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벨 에포크를 주제로 한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패션 칼럼니스트 심우찬이 그 시절의 찬란한 배경과 더불어 지금의 흥미로운 풍경을 소개한다.

14 **2020 S/S TREND REPORT** SF 영화 속 첨단 기술이 접철된 미래로 그려졌던 2020년. 패션은 테크놀로지 대신 사람 냄새나는 것들을 탐닉했다. 여자의 몸에 대한 찬양, 손맛을 살린 장식, 자연과의 교감, 자나간 시대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2020년 S/S 시즌 트렌드를 소개한다.

16 **PERFECT MATE** 모든 순간을 소중한 여가며 의미 있게 채워 나갈 당신의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캘린더 워치.

17 **SUIT YOURSELF** 정교하고 빈틈한 슈트, 보다 다채롭게 즐길 방법은 없을까?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프링 슈트 스타일링 방법 4가지.

18 **HAUTE JEWELRY** 의상에 오프 쿠티르가 있다면, 보석에는 하이 주얼리가 있다. 진귀한 원석에 메종의 모든 노하우와 장인 정신을 쏟아붓는 마스터피스. 파리에서 메종의 혼을 담아 완성하는 주얼리를 만났다.

20 **MY FAIR LADY** 세련된 안목과 고급스러운 취향을 만족시키는 뉴 클래식 백 리스트.

21 **SUPER STYLE** 2020 봄, 여름 뉴 & 빅 트렌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모델들.

30 **PINK FOREST** 향긋한 꽃 내음 가득한 핑크빛 향수 컬렉션.

31 **TIME TO REFLECT** 봄별처럼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진귀한 성분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컬렉션.

32 **HEAVENLY REST** 피곤했던 몸을 나른하게 풀어주고, 편안한 향으로 지친 마음까지 다독여줄 인욕 제품.

33 **ALL THAT CUSHION** 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직접 사용해본 브랜드별 쿠션 파운데이션.

34 **EDITOR'S PICK** 피부에 환한 빛과 생기를 선사해줄 스프링 뷰티 아이템.

Style

조선일보 Issue.201 March 2020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캘린더,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을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채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외로 발행됩니다.



7가지 프리&프로바이오틱스 성분*
 제니피끄로 7일만에 광채 나는 동안 피부

NEW ADVANCED GÉNIFIQUE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으로 더 강력해진 뉴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제니피끄 에센스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은 동결 건조, 발효 용해 등의 공정을 통해 얻은 것으로 유산균 생균이 아니며, 비피다 발효 용해물, 효모추출물, 락토비실러스 발효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atch
SPECIAL FOR NEW YEAR

천 년의 역사를 지닌 십이지 동물에서 영감을 받아 장인의 손으로 다시 태어난 쥐 모티브 시계 다섯.

황금 금슬을 기원 넣고 두드려 채우는 고대 예술 기법을 사용해 이탈리아 장인이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했다. 12시 방향으로 카바를 열 수 있는 루미노르 새만드 44mm 2천7백만원대 **파파리**, 화이트와 브라운 컬러 카베어로 다이얼을 장식하고 로즈 골드 베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단 8정만 제작한 리미티드 에디션 레인드 보이를 8955 개미야 8천9백만원대 **브라게**, 오랜 시간 건조하고 굵은 단계를 수차례 거쳐야 하는 포슬린 다열 위 30리니 주에 극도로 정교한 붓으로 애플 페인팅을 했다. 화이트 골드 베젤에 4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타에 디르 포슬린 스페셜 에디션 가격 미정 **볼랑팡**, 일본의 전통 옷 두루마리 기술로 풍요의 상징인 오수수 위에 양이 있는 쥐를 표현했다. 3.3mm의 얇은 두께에도 65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자체 제작 무브먼트 L.U.C 96.17-L을 장착했다. L.U.C XP 2020 무루시 가격 미정 **스파드**, 화이트 케이스에 7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파피제 자체 제작 430P 울트라 신덴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애플 메탈의 수작업으로 완성한 흰 주가 돋보이는 알타플라노 8천3백만원대 **파피제**, 에디터 **아주이**



Fashion
STRUCTURED BAG

각잡힌 스퀘어 라인과 견고한 톱헨들. '잇백'의 새로운 기준이 된 스트럭처 백.

(우부터 차례대로) 국내에서만 선보이는 연아침 에디션으로 아이코닉한 C 메탈 장식을 실버 버전으로 출시한다. 사치니 카프 스카파 스웨이드 재킷한 이중 플랩 디자인이 특징. 1백만원대 **클로에**,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은 숄더 스트랩으로 제작한 바스프 백, 클로제에 갇혀니 모티브를 기하학 포인트를 주었다. 2백만원 **스비트레 파라기모**, 스타마 일체 숄더 스트랩으로 제작한 사치니 형태 브로슬링 백. 2백30만원 **발렌티노 가디비니**, 에디터 **아주이**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집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Living
나의 일상을 채우는 공간의 디자인 감성

온갖 악재가 세상을 명틀게 해도 붉은 찾는다. 어쩌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이나 인력한 공간의 소중함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때일지도 모르겠다. 올봄에 거실, 침실, 주방 등 일상의 공간을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게 수놓을 수 있는 디자인 소품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스마트 기기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핀다크 가구 브랜드 프리츠 한센은 이르네 아폴센의 명작 '시리즈 7'에 이탈리아 발벤텔을 입힌 의자를 재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다목적 의자 'NO2' 리사이클을 선보였다. 일본 텐도 스튜디오와의 협업 시리즈로 소박하고 따뜻한 감성을 영투여 했다. 핀란드 라빙 브랜드 이탈라(itala)의 나폴라 플랜트 팻은 싱그러움 감성을 더해줄 수 있는 화분 컬렉션이다. 핀란드어로 단추라는 뜻을 지닌 '나폴라(Nappula)' 컬렉션은 캔들 홀더 시리즈가 먼저 나왔고, 이번에 세미의 화분 시리즈 6종을 새로 선보였다. 북유럽 디자인 특유의 편안하고 간결한 느낌을 지어내는데, 식물이 없어도 아름다운 오브제 역할을 한다. 화이트, 다크 그린, 베이지 등 색상은 세 가지. 이탈리아에서는 올해의 컬러인 '리넨(linen)'을 비롯한 여섯 가지 색상을 반영한 유리 볼 시리즈 '미란다(Miranda)'도 내놓았다. 이탈리아 가전 브랜드 드롱기의 신제품 아이코나 커피틀 2구 토스터도 주방의 풍격을 높여주지 않을까 싶다. 네이비와 화이트 톤으로 나왔는데, 특유의 고급택 소재와 멋진 곡선을 잘 살려주는 색상이다. 실내 공기의 진정한 '웰빙'을 생각한다면 공기 오염은 물론 습도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영국 브랜드 다이슨의 가습 공기 청정기를 눈여겨볼 만하다.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 쿨 크립토믹™ 가습 공기청정기라는 긴 이름을 지닌 이 제품은 UV-C 광선과 관련된 첨단 기술로 효율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면서 겨울철에는 위생적인 가습, 여름철에는 쿨링 기능이 지 선사한다고. 화이트 골드와 건메탈쿠퍼, 두 가지 색상이 있다. 다이슨의 신제품으로는 기존 모델(V8)에 비해 40%가량 작고 가벼워졌다는 무선 청소기 다이슨 V8 슬림 무선 청소기도 있다. 무게 2.15kg. 에디터 **고성연**



Beauty
FOR HIS SKIN

풍부한 보습력과 피지 조절 기능은 물론,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갖춘 그루밍 필수 아이템.

(우부터 시계 방향) **키엘 에이지 디펜드 젤 모이스처라이저** 흰 저자녀 나무와 아마 씨 추출물이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젤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장점(50ml 5만9천원). **디올 울트 더오 시스 템 에이지 컨트롤 피밍 케어** 발효 성분이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고, 비타민 E 인산염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준다(50ml 9만8천원대). **크리니크 포 맨 수퍼 에나자이저 인티 피디 하이드레이팅 콘센트레이트** 크레이틴, 아데노신 인산염, 무수 카페인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이 피부에 활력을 더해주고, 칙칙한 톤 개선에 효과적이다. SPF 25 PA+++ 자외선 기능도 갖추었다(48ml 6만4천원). **시슬 블루 세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코스타리카 그린 커피 추출물과 이탈리아 사르데냐 올리브, 그리스 레티스크 등 세 가지 천연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고 본연의 재생력을 높여준다(30ml 14만8천원). **시슬리 시슬리움** 젤과 크림 타입, 두 가지로 구성해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외상 약에 사용하는 알란토신이 손상된 피부를 치유해주고, 진정 효과가 뛰어난 D-판테놀과 천연 알파 비사보롤을 함유해 애프터 셰이브 제품으로도 제격이다(50ml 26만원). 에디터 **아주이**

Exhibition
바이러설 창경 구역인 온라인으로 작품을 만나세요

지구촌을 경이하게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 대다수의 미술관과 갤러리가 일시 휴관을 하고 전시를 연기 내지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대 미술 행사인 아트 바젤 홍콩 출품작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올봄 아트 바젤 홍콩은 취소됐지만, 원래 참여할 예정이었던 갤러리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위한 소통도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인 '온라인 뷰잉 룸(Online Viewing Room)'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아트 바젤 홍콩은 세계 곳곳에서 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 장터. 컬렉터가 갤러리, 아티스트 등을 키워드로 수천 점의 작품을 검색하고 구매 문의도 직접 할 수 있는 온라인 뷰잉 룸은 오는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실제 페어처럼 VIP 카드 소지자만 접근 가능한 VIP 프리뷰 행사는 이에 앞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라이브로 진행된다. 스위스 바젤, 미국 마이애미 비치 등에서도 아트 페어를 개최하는 아트 바젤은 실제 경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작가의 작품을 추가로 전시하는 식으로 아트 페어와 병행하는 차원의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첫 회에 한해서는 올해 부득이하게 취소된 아트 바젤 홍콩 2020에 출품하려 했던 갤러리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온라인 뷰잉 룸을 꾸린다. 따라서 올해 아트 바젤 홍콩 참가를 확정했던 갤러리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뷰잉 룸은 웹사이트(artbaseel.com/viewing-rooms)와 아트 바젤 앱을 통해 실행 가능하다. 에디터 **고성연**

P
R
A
D
A

ROGRAMMING

HYTHMS

ND

ANCING

GAIN





비스쿠스 슬리브리스 톱
24만원 보스 우연

실크 장보 브레이슬릿
37만원다 에르메스.

핀코의 브라운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라온드 스텐다리스
60만원다 디올.

강고한 소가죽으로 완성한
이탈리아 크로스 보디 백,
24X17cm, 39만원
조이그라이스.

세팅미스트 유착점
아사노테 이세형 에디터 아우미

우아한 숏이자가족 탕메트
톱 핸들 백, 22X19cm,
66만원다 엘보.

비즈니스 혹은 휴먼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는
카브 그레인 데어 힐
1백22만원 바버리.

브라스 브이링 밴들 61만원
비엔티노 가제버니.

로동 플레이팅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브레이슬릿 12만원
스외로브스키.

화이트 셔츠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스웨이드 스커트
2백38만원 파비어나 필리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팔각 베이지
골드 케이스 베젤과 트윈드
패턴을 적용한 스트랩이 조화로운
보이프렌드 트윈드 워치 가격 미정
사넬 워치 & 화인 주얼리.

핑크·옐로·
화이트 세로무늬과
영광한 다이아몬드가
아우라진 고프로
칼렉션 후프
이어링 1천만원대
부세론.

상당수의 불꽃 패턴이 코코 크리시니 스톤 링
가격 미정 사넬 워치 & 화인 주얼리.

보스 우연 02-515-4088
에르메스 02-542-6622 디올 02-
3490-0104 보타가 베타타 02-3438-
7882 발렌티노 가제버니 02-2015-4653
조이그라이스 080-202-2002 프라다 02-
3442-1830 스외로브스키 02-514-9006 자황시
02-546-2790 바버리 080-700-8800 엘보 02-
3449-5916 파비어나 필리피 02-6960-0843 브루셀로
루차펠리 02-3448-2931 부세론 02-3479-6028
사넬 워치 & 화인 주얼리 080-200-2700

자적인 분위기의 그레이트 레드 레더
미스틱 벨트 가격 미정 자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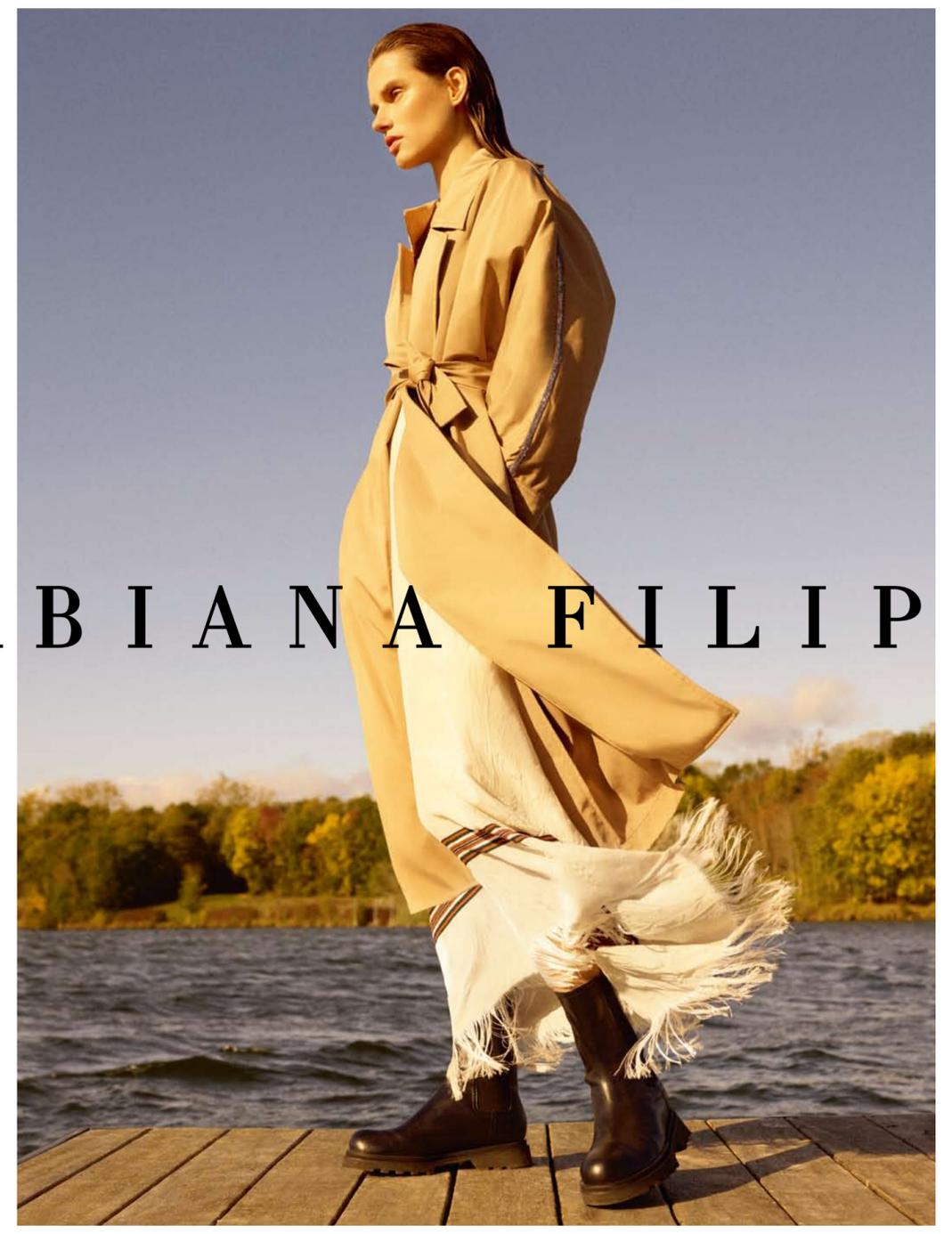
광택인 인상을 자랑하는 화이트
핑크 가죽 미팅 스트랩으로 유채색리.

부드러운 숏이자가족으로 제작한
모카신 1백10만원대 프라다.

for her Selection

섬세한 디테일과 부드러운 소재로 즐기는 소프트 비즈니스 웨어.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F A B I A N A F I L I P P I



FABIANAFILIPPI.COM



레이저 컷팅 기법을 활용해
입체적인 효과를 준 벨트
리본형 백, 48x40cm,
5백75만원 벨트.
5백75만원 벨트.

베네치아 스타일 벨트
98만원 벨트.

메탈과 아세티탄으로
재킷형 빅 프레임 선글라스
가격 미정 자켓시.

클래식한 다름 제자 3백60만원 구찌.

스니커즈 배너 컬러 1백만원
이탈리아산도 벨트.

for him Selection

세련된 톤과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새롭게 해석한 비즈니스 웨어.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컬러버 8910으로 구동하는
드림 트래저 오메가
코-엑스칼 마스터
크로노미터 8백만원대
오메가.

특유의 인트레피도 기법으로 완성한
카프 스킨 크로스 보디 백, 14x28cm,
2백40만5천원 보타가 베네타.

패션 벨트 (가방) 120만원 벨트, 1백60만원 오메가 벨트.

실크 탱카트
가격 미정 보스 맨.

실용적인 수납 기능을 갖춘 블랙
카드 리더 방지갑 63만원 톨포드.

오렌지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스킨 배너 130만원대 에르메스.

세이지와 리본다름 사적으로
재단봉과 나트백으로 이어지는 우아한
향. 엔드 문공상상 100ml,
27만원 펜할리곤스.

태슬 장식이 돋보이는
스웨이드 로퍼 77만원 톨즈.

ASERLITE 양방향
이탈리아산도 벨트 1백40만원

- 에르메스 벨트 02-518-0285
-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 펜할리곤스 02-3213-2057
- 벨트 02-2056-9023
- 벨루티 02-547-1895
- 자켓시 02-546-2790
- 오메가 02-511-5797
- 구찌 1577-1921
- 다올 맨 02-3480-0104
-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 보스 맨 02-515-4088
- 에르메스 02-542-6622
- 톨즈 02-3438-6008
- 차처스 02-772-3896
- 톨포드 02-6905-3534

코튼 카디건 1백53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JOY GRYSON



‘이름다운 시대’의 가치를 돌아보다 ①

belle époque & inspirations

이름다운 시대라는 뜻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 특히 파리가 전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부각하던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당시 파리는 문학, 화가, 음악가를 비롯한 모든 문화 예술인이 모여드는 곳이고, 아이디어와 영감을 나누는 살롱(salon) 문화를 유행시키며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이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벨 에포크로 불리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1백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그 인기는 ‘현재진행중’이다. 게다가 단순한 레트로가 아니라 ‘복고’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10, 20대가 과거를 현재의 감성으로 즐기는 ‘뉴트로’ 열풍과 맞물려 벨 에포크 시대의 콘텐츠가 새롭게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벨 에포크를 주제로 한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패션 칼럼니스트 심우찬이 그 시절의 찬란한 배경과 더불어 작금의 흥미로운 풍경을 소개한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 나잇 인 파리》를 보면 미국에서 온 작가 길(Gil)은 파리의 거리에서 길을 잃고 클래식 푸조 자동차를 얻어 탄다. 그리고 1920년대로 황홀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이후 현실에서 상상하기 힘든 흥미진진한 만남이 잇따라 펼쳐진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피츠제럴드 부부와 파리 밤거리를 탐닉하기도 하고, 술에 취한 아티스트 헤밍웨이와 마주치기도 한다. 우연히 들른 거트루드 스타인의 집에서는 파블로 피카소와 그에게 영감을 주는 것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살바도르 달리의 열정적인 예술론을 듣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 속에서 마차를 타고 조금 더 앞선 시대로 간다. 풍요와 낙원이 지배하며 파리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적으로 찬란한 꽃을 피웠던 벨 에포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것. 폴 고갱, 톨루즈 로트레크, 에드가 드가 등이 등장하는 1890년대의 매력적인 파리.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오직 예술만이 인생의 목표처럼 보인다. 감미로운 음악과 샴페인이 끊이지 않고, 한껏 치장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도시의 배경이 바로 아름다운 시대(Belle Époque)다.

르네상스 시대와 더불어 서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대로 여겨진다. 벨 에포크. 물론 당대 사람들은 스스로 이 시기를 벨 에포크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훗날,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란 불행 겪고서야 사람들이 이 시대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대였는지 비로소 깨닫고 부르게 된 명칭이다. 현실이 힘들고 각박해질수록 이 ‘좋은 시절, 벨 에포크는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됐고, 당시의 풍요와 낭만을 동경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개화기’라 부르는 근대 초기,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는 나름 특별했던 시기인 듯하다. 복고 감성을 새롭게 해석하는 뉴트로가 강력한 키워드로 각인되고, 각종 인제(人製)가 지구촌을 근심으로 물들이고 있는 요즘, 아름다움의 가치에 오롯이 몰입할 수 있었던 벨 에포크의 정수가 더 그리워지는지도 모르겠다. 마침 현재만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기에 6개의 굵직한 벨 에포크 관련 전시가 열리고 있는 풍경은 그 증거처럼 보인다. 19세기 유럽과의 교류로 벨 에포크를 반영한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누려온 일본에서는 최근 이 시대의 뮤즈를 조명한 소토 미술관의 《사라 베르나르의 세계》전을 비롯해 여러 전시가 열렸고, 현재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벨 에포크 작가를 다룬 《알폰스 무히》와 《톨루즈 로트레크》가 각각 마이어트뮤지엄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세계를 향한 소원도, 만국박람회의 위용

프랑스는 전쟁과 혁명으로 점철된 긴 터널에서 벗어난 1871년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무려 40여 년간 풍요가 넘치고 평화로운 번영의 시기를 맞는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도시의 산업화를 가져왔고, 화려한 예술과 문화가 꽃피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지만 문화의 발전은 사상의 진보를 불러왔다. 이처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새로운 욕망이 강하게 대두됐다. 바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한 ‘물질’에 대한 인간의 강한 소유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수차례 열린 만국박람회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집약체라고 할 만했다. 물건을 만들어 제일 먼저 소개하는 기회이자, 홍보하는 행사이기 때문. 국가 입장에서 이 행사는 각 산업이 단기간에 세계의 주목을 끌어 엄청난 발전과 홍보 효과를 얻는 동시에,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이 시기 프랑스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열정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1889년, 프랑스혁명 발발 1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파리의 만국박람회를 위해 거센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킨 에펠탑이 들어섰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서는 지금도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다리로 불리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와 샤흐의 컬렉션 쇼가 열리는 그랑 팔레를 세웠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하철이 다니게 됐다. 이미 파리는 나폴레옹 3세를 등에 업은 조르주오펜 오스만 남작의 거대한 도시계획에 의해 시내의 모든 건물과 광공시, 하수구, 마차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 시스템으로 재정비된 상태였다. 파리자영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이다. 모든 첨단 기술과 산업은 만국박람회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전기, 전화, 자동차, 사진, 영화, 항공, 신문 등은 그렇게 만국박람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거나 활성화되는 계기를 얻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번영을 맞이한 파리로 물러들었다. 당시 파리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듯한 매혹의 도시였다. 거리는 우아함과 활기로 넘쳐났다. 많은 문화 예술인과 지성인이 찾던 ‘빛의 도시’ 파리는 동시에 해가 지고 나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밤의 도시이기도 했다. 밤 문화를 상징하는 대형 카바레 몰랭 루주를 위시한 유흥가에는 불빛이 꺼질 날이 없었다. ‘몰랭 루주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톨루즈 로트레크가 그런 수많은 포스터에서 집착할 수 있듯이 말이다.

세기말 감성과 아르누보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대인 만큼, 19세기 말에는 이 변화의 의미를 좀 더 ‘멜랑콜릭하게’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불거졌다. 단순한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기계화로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에 대한 탄식이라고 여겼다. 사회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는 동시에 커다란 불안감을 몰고 왔다.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산업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등한시되기 마련이다. 모든 가치가 생산과 이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행위에 쫓리는 시기였지만, 인간에 대한 숭고한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 도덕적인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도 존재했다.

바로 이 시기에 문학, 철학, 종교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기말적 흐름이 나타난다. 시각예술 역시 큰 혼돈과 변화를 겪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 시기에는 기계 사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현실의 참혹함에 대한 회의가 깔려 있었다. 동시에 이 예술은 매우 관능적이고 탐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절망, 불안, 허무 같은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런 삶을 감내할 수 있게 해주는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했다. 그 퇴폐적인 아름다움은 세기말을 무엇보다 잘 표현해주는 단어, 바로 데카당스(décadence)로 불린다. 데카당스란 기존의 확립된 규범에서 보면 이탈일 수도 있고 단지 퇴폐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약속되지 않은 부조화에서 튀어나오는 묘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퇴폐적인 느낌은 세기말과 섞이면서 일종의 중량 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더 절실하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파리, 비엔나, 런던 등 각국의 예술 중심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아르누보 역시 세기가 바뀌는 전환기의 분위기를 반영한 예술 운동이었다. 파리 벨 에포크의 상징과도 같은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알폰스 무히는 이 시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뛰어난 예술가였다. 체코 출신의 가난한 화가 무히는 유려하고 정교한 곡선으로 자연과 여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낸 포스터로 파리에서 큰 유행세를 타게 됐는데, 특히 당대의 스타 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포스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그녀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주기도 했다. 그리고 무하와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30대에 요절한 화가 톨루즈 로트레크는 보다 현실적이고 음지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벨 에포크 시대를 수놓은 전혀 다른 개성의 두 천재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듯하다.

시대를 넘나드는 창의력을 발휘한 르네 탈리크(René Lalique)

아르누보에서 아르데코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천재적인 보석 디자이너로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가 존재하는 르네 탈리크(René Lalique)다. 그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따서 완성하는 장식성을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 생각했는데, 이는 곧 아르누보의 정신이기도 했다. 소재라든가 영감, 형태에서 탈리크가 하이 주얼리업계에 가져온 변화는 지금까지 그 영향이 남아 있다. 그의 성공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번식스러운 대중의 취향은 그로부터 5년여 만에 과장된 볼륨이라든가 장식적인 요소에 치중된 아르누보 스타일을 한물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다 심플한 실루엣에 대량생산을 염두에 둔 아르데코의 시대가 찾아왔고, 탈리크와 럭서리 주얼리업계는 대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게 ‘한물간’ 디자이너가 되는 줄 알았던 탈리크는 화려하게 부활한다. 1908년, 당시 최고의 향수 메이커였던 코티(Coty)가 그에게 향수병과 라벨 제작을 의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코티는 보다 많은 여성을 사로잡을 고급스러움과 특별한 느낌을 주문했다. 탈리크는 보석 디자인에서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나머지 반생을 유리 제품과 다양한 상업 디자인에 헌신하면서 ‘탈리크’라는 브랜드를 남긴다. 대량생산이 일반화된 시대에 어떻게 럭셔리 브랜드 정신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브랜드 유산을 마케팅에 활용해 끊임없이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하는지를 탈리크는 한 세기 앞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그가 추구했던 방향성은 오늘날 럭셔리 산업의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에 남아 있다. 탈리크의 창의적인 행보가 현재의 디올, 샤넬,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에 준 영향은 매우 크다. 벨 에포크의 영감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여러 형태로 자주 ‘소환’되는 배경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글 심우찬(프랑스 여행작가) 저자 Edited by 고영진

▶1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메리 메를리프(2020, 현상사). ▶2 일본 오사카 시야이시에 있는 시야이 알폰스 무히 미술관에서 열린 《세기말 파리》 전시의 포스터. 알폰스 무히는 체코 출신이지만 일본에서는 알폰스 무히라는 프랑스 발음의 통용된다. ▶3, 4 알피드 톨루즈 로트레크의 두 대표작 ‘몰랭 루주: 라 굴레’(Moulin Rouge: La Goulie)(1891)와 ‘디반 자포네’(Divan Japonais)(1893). 알피드 로트레크, 포스터, C-Herakleidon Museum, Athens Greece ▶5 무히의 걸작 ‘사랑의 연인들’(Amants)(1895). 시야이 알폰스 무히 미술관 소장품이다. ▶6-10 르네 탈리크(René Lalique)가 디자인한 보석, 마스콧의 자동차와 향수병(1913), 브로자(1887~1888), 펜던트(1901~1902), 그리고 오라녜르 악스프레스 열차의 차량 실내장식. ▶11 일본 후쿠에 탈리크 미술관에서 열린 《아르누보의 화환》 전시 포스터. 6~11 C-Hakone Lalique Museum ▶12 20세기 초반의 루이 비통 포스터와 모노그램 캔버스 트렁크. ©Louis Vuitton Collection

2020 S/S Trend Report

SF 영화속 첨단 기술이 접철된 미래로 그려졌던 2020년, 패션은 테크놀로지 대신 사람 냄새나는 것들을 탐닉했다. 여자의 몸에 대한 찬양, 손맛을 살린 장식, 자연과의 교감, 지난간 시대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2020년 S/S 시즌 트렌드를 소개한다.

trend 1. Denim Affair

살용적이고, 멋 내기 쉽고, 기본 중의 기본인 데님에 보내는 디자인자들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번 시즌은 패치워크하거나 워싱한 빈티지 데님부터 그런지한 '짱짱', 깔끔한 인디고 데님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사랑받을 예정. 실루엣의 폭도 넓다. 샤랄은 버뮤다 데님 팬츠를, 셀린느는 1970년대 플레이 실루엣을, 보테가 베네타는 스트레이트 데님을 선보였다. 아래위를 모두 데님으로 입는 '더블 데님' 스타일링, 물론 '땃츠 오케이'.

trend 2. Business in Bermuda

동시대적인 페미니즘은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반영하는 것.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적 요소를 다방면으로 탐구하며 테일러링 슈트를 온전히 '여성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팬츠 길이에 주목해야 한다.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의 버뮤다팬츠 슈트가 유행할 전망이다. 잘 만든 세련된 슈트는 신뢰감을, 활기차고 유쾌함을 더한 버뮤다팬츠는 유연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보테가 베네타, 지방시, 클로에, 알투자라 등의 컬렉션을 참고하자.

trend 3. Neon Sign

이번 시즌 유행 컬러를 한 가지만 꼽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색이 다 유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채로운 색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색이 있으니, 바로 핑크이다. 눈부시게 발광하는 네온은 극도로 세련된 럭셔리 의상에 젊음과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맡았다. 발렌티노의 섬세한 실크 소재 형광 드레스 시리즈와 남부 프랑스의 시골 마을을 하이패션의 세계로 바꾼 자크루이의 컬렉션이 대표적인 예.

trend 4. Craft Work

할머니의 감성을 담은 핸드메이드 크로세, 손으로 짠 투박한 니팅,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라피아 소재의 마크라메 등 느낌의 미학을 전하는 수공예가 유행의 정점에 올랐다. 모던함을 대표하는 질 샌더는 크로세와 프린지 장식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투박함이 세련됨이 되는 순간이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법을 전수하듯 코바늘로 뜬 로에베의 톱, 라피아 꽃이 활짝 핀 크리스찬 다음의 스킷도 럭셔리 크래프트의 정수를 보여준다.



trend 5. 70's is Back

패션계는 197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재킷 위로 꺼낸 커다란 칼다, 롱 & 린 실루엣, 밑단이 살짝 퍼지는 플레이 팬츠, 지오메트릭 패턴, 얼굴을 덮는 베타 카트루스 스타일의 선글라스 모두 1970년대를 가리킨다. 촌스러움을 현대식으로 재정의한 브랜드는 빅토리아 베컴, 루이 비통, 그리고 생 로랑. 빅토리아 베컴은 부드러운 컬러의 톤온톤 매치로, 루이 비통은 파리의 벨 에포크 서정을 더해, 생 로랑은 특유의 날카로운 재단으로 2020년대식 레트로를 완성했다.

trend 6. Spring Leather

가죽에 대한 편견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 가죽은 주요 가을 소재이고 블랙이나 브라운이면 족하다는 것. 매끈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고급스러운 광택이 어우러진 가죽은 다양한 색을 입고 뉴욕부터 파리까지 런웨이를 메웠다. 진한 녹색, 톤 다운된 하늘색, 깊은 적갈색 등의 컬러를 입은 가죽은 봄 옷차림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더불어 지방시, 보테가 베네타, 마르니,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제안한 것처럼 토틸 룩으로 입는다면 완벽하다.

trend 7. Body Confidence

옷 입는 방식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비중으로 결정된다. 울여름은? 여성성의 대승리. 성적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들은 이렇다. 질룩한 허리를 드러내는 코르세, 당당하게 가슴을 강조하는 재킷과 브라렛의 조화, 풍요의 상징인 엉덩이를 구조적으로 강조한 드레스, 손바닥만 한 아찔한 핫팬츠, 어디든 보여도 상관없는 시스루 란제리, 여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유로이 관능의 날개를 펼치길.

trend 8. Tropical Effect

세계 곳곳에서 자연의 역습을 받는 21세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디자이너들은 자연을 향한 애타는 애정을 드러냈다. 마르니가 대표 주자. 업사이클 소재와 유기농 면을 사용해 열대우림의 초록을 컬렉션에 풀어냈다. 컬렉션 의상의 75%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스탠라 맥카트니의 플라워 프린팅, 앙리 루소의 화풍을 연상시킨 발렌티노의 정글 프린트 등도 지금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킨다.

trend 9. Polka Dots

올봄 패션 키워드는 '촌스러움의 대반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고풍 땡땡이, 즉 물방울무늬가 돌아왔다. 아무리 유행이라지만 화려한 지오메트릭 패턴과 컬러풀한 도트 무늬를 매치해 극적인 효과를 노린 드리스 반 노트이나 스타카마저 물방울무늬로 중무장한 발렌시아가의 구조적인 의상은 현실에서 소화하기엔 다소 무리일 터. 블랙 & 화이트의 도트 패턴을 독특하게 활용한 막스마라, 발랑, 마이클 코어스의 센스를 빌리는 것이 좋겠다.

trend 10. Well-Vested

1970년대와 슈트의 대유행으로 수혜를 입은 것은 '조개, 즉 베스트다. 어지간해서는 입을 일 없는 베스트가 올봄 메가 하우스들의 컬렉션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버버리, 막스마라는 엄격하고 고전적인 스리 피스 슈트를 위해, 구찌, 마크 제이콥스, 루이 비통은 1970년대 레트로풍 슈트의 기록제로, 셀린느와 생 로랑은 히피가 지닌 자유로움의 표현으로 각자 베스트를 선택했다. 선택의 폭이 넓으니 올봄엔 베스트를 하나 더하는 것만으로도 입체적인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객원 에디터 남지현



Denim Affair: BOTTEGAVENETA

Denim Affair: CÉLINE



Neon Sign: MARINI

Neon Sign: VALENTINO



Business in Bermuda: MICHAEL KORS

Craft Work: DIOR

Tropical Effect: FENDI

Body Confidence: BURBERRY

Body Confidence: LOEWE

70's is Back: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O & GILLO

Polka Dots: GUCCI

Spring Leather: SALVATORE FERRAGAMO

Well-Vested: MAXMARA

Well-Vested: LOUIS VUITTON

perfect mate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채워나갈
당신의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캘린더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IWC 포르투기저 에뉴얼 캘린더 다이얼 12시 방향에 위치한 독립된 3개의 창을 통해 월, 날짜, 요일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뛰어난 가독성을 자랑하는 캘린더 워치. 인허우스 자체 제작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52850으로 동력을 제공, 총 792건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춤. 다이얼 3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자리한다. 지름 44.2mm 3천8백20만원. 문의 02-3440-5878

몽블랑 스타 레가시 톨 캘린더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에 담아낸, 명료한 동시에 기쁨이 느껴지는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로고가 위치한 다이얼 뒷부분에는 요일과 월을 표시하는 창이, 6시 방향에는 동화적 감수성이 느껴지는 문패이즈 창이 위치한다. 기묘세 차리한 다이얼 안쪽 둘레를 따라 숫자 1부터 31까지 새겨 넣은 띠 모양의 창과 붉은색 초승달 모양 벤츠로 날짜를 읽을 수 있다. 5백68만원. 문의 1670-4810

비제르 론스타인 피르피사스 컴플리트 캘린더 은은하게 빛나는 오픈윈 스텐바스트 효과를 더한 페트를 블루 컬러 다이얼이 우아하다. 정확한 시간 조정이 가능한 스물 세컨즈 시스템을 적용한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2460 OCL/1로 구동한다. 날짜, 요일, 월 표시 기능은 물론 1백22년간 조정이 필요 없는 정교한 문패이즈 기능까지 갖췄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6-0088

에거 로블트르 라베르스 트리뷰트 캘린더 하나의 시계에 2개의 다이얼을 양면으로 탑재해 2개의 타임존과 하나의 컴플리트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다. 전란의 상하 그래픽이 다이얼에는 시, 분, 요일, 월, 그리고 날짜창으로 둘러싼 문패이즈 창을 담았고, 후면의 차를 그래픽이 다이얼에는 세컨드 타임존, 낮과 밤 인디케이터를 장식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305-3998

파이피 구버너 워치 원형과 타원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형태의 핑크 골드 케이스 안에 페퍼추얼 캘린더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체 제작 옴타라 신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885P를 탑재, 다이얼을 통해서, 분, 스물 세컨즈, 세컨드 타임존, 낮·밤 인디케이터, 레트로그래이드 방식의 요일과 날짜, 달, 윤년을 모두 읽을 수 있다. 7천만원대. 문의 02-540-2297 에-더-이해이

이노베이션 조지



Color Combination

흰색을 베색으로 재킷과 팬츠를 맞춰 입었다면, 보색 넥타이를 매치해볼 것. 약간의 패턴까지 가미되었다면 경쾌한 느낌을 한껏 살릴 수 있다. 캐시미어와 실크 저지를 혼합해 실루엣이 부드러운 스웨터 재킷 4백50만원대 로로피어나, 코튼 소재 슬림 핏 드레싱 셔츠 15만9천원 브룩스 브라더스, 네이비와 라이트 블루 베색이 돋보이는 BBK11 슬림 실크 타이 9만5천원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 플라자, 치분한 브라운 색감이 돋보이는 스트레치 워드 울 슈트 팬츠 23만원 맨오더본.



Pattern Play

좀 더 과감한 슈트 스타일링에 도전하고 싶다면, 작은 패턴을 기미한 팬츠 슈트는 어떨까. 이때 깔끔한 화이트 셔츠나 디테일이 적은 타이를 함께 연출해 과하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이 포인트다. FF Karl 자카드 모티브를 적용한 팬츠 슈트, 울, 코튼, 실크를 최적인 비율로 배합해 은은한 광택과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자랑한다. 재킷 3백45만원, 팬츠 1백39만원 모두 맨디, 화이트 코트 셔츠 79만원 남버넷, 크라프트사포 멜론 쇼이 실크 타이 가격 미정 델모.

suit yourself

정교하고 반듯한 슈트, 보다 다채롭게 즐길 방법은 없을까?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프링 슈트 스타일링 방법 네 가지.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Navy & Grey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 조합은 언제나 유효하다. 특히 재킷을 주고 싶다면 단색의 무지보디는 체크 패턴을 기미한 팬츠를 선택해보자. 캐시미어와 실크 저지로 제작해 독특한 소재감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스웨터 재킷 28 가격 미정 로로피어나,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코튼 셔츠 98만원 브리오니, 바진 울 소재 슬림 핏 트라이시틀 메리노 울 팬츠 가격 미정 후고 보스, 프린트 실크 타이 20만원대 에르메스.



One Point

폭이 좁은 타이를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슈트를 좀 더 세련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슬림한 타이는 절로 발랄한 인상을 준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레굴러 핏을 자랑하는 포멀 올리브 그린 팬츠 슈트 3백55만원 벨벳루, 클래식 이브닝 스타일링 감각과 특장인 코튼 셔츠 가격 미정, 슬림한 라인이 돋보이는 실크 타이 가격 미정 모두 생양복 by 안티니 바키레로, 에-더-이해이

1 화이트 골드에 오픈스과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중앙에는 5.03캐럿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트루드 네크리스.
2 옐로우 핑크 골드, 플라티넘, 진주, 다이아몬드로 만든 사벨 하이 주얼리의 트루드 브로치, 3 화이트 골드, 오픈스,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재구성한 사벨의 트루드 브레슬렛.
4 유색 보석으로 풍성함을 살린 트루드 네크리스.
5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원석, 루이 비통은 이 원석의 주인이 되었다. 6 7종의 다이아나 디.사이드 아이링, 18K 핑크 골드에 자개를 세팅했다. 7 디.사이드 탄생 20주년 기념 네크리스, 총 42g의 화이트 골드에 6백1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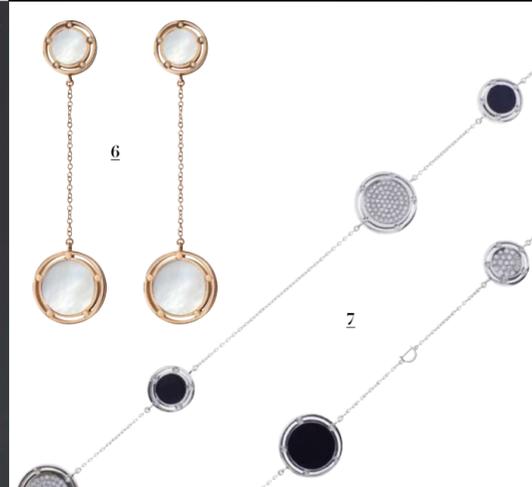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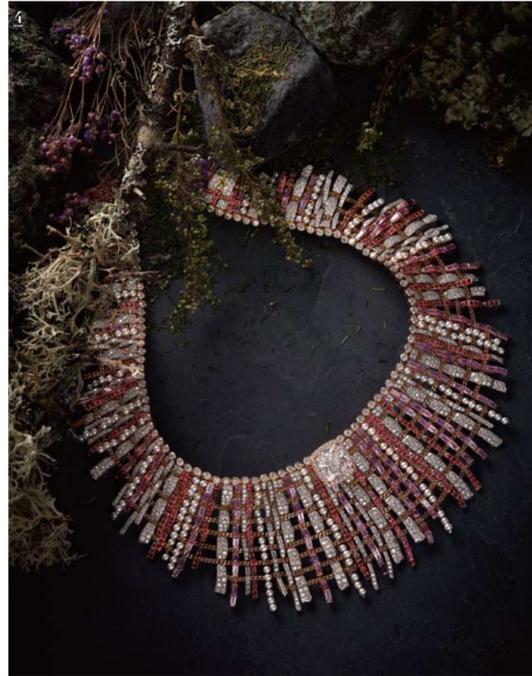
haute jewelry

의상에 오프 쿠튀르가 있다면, 보석에는 하이 주얼리가 있다. 진귀한 원석에 매종의 모든 노하우와 장인 정신을 쏟아붓는 마스터피스. 파리에서 매종의 혼을 담아 완성하는 주얼리를 만났다.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파리 오프 쿠튀르 컬렉션이 열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추상적인 영감을 옷으로 표현하되 디자이너와 장인의 철칙공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오프 쿠튀르는 판매를 위한 컬렉션인 레디투웨어와 확실히 구분된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딱 한 벌만 존재하는 하이엔드(high-end) 맞춤복이다. 이 기간에 주얼리 매종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하이 주얼리는 매우 구하기 힘든 진귀한 원석으로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원석을 사용한 단 하나의 피스만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일 고객이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더라도 같은 스톤을 또다시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물론 1~2년 또는 10년 후라도 구한다면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처럼 하이 주얼리는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디자인과 희소성 높은 원석의 조화로 탄생한다. 매종은 더 화려하고, 더 기술적이고, 더 감동적인 컬렉션으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감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마치 손으로 짠 스코틀랜드산 울 트루드처럼 부드럽게 느껴지는 듯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기록하며 기쁨을 토한 영화 <기생충>의 여주인공 조여정이 택한 주얼리로 큰 이슈가 된 다이아나는 디.사이드 컬렉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피스를 선보였다. 방돔 매장에서 만난 부사장 실비아 다이아나는 유쾌하고 솔직한 여성이었다. 영화로 시작해 문화, 시대를 이끌어온 스타일 아이콘 여배우들의 주얼리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화 후 만난 컬렉션 탄생 20주년 기념 디.사이드 하이 주얼리. 2000년 브래드 피트가 본인의 웨딩 링으로 선택해 화제가 되었던 디.사이드 컬렉션은 원을 둘러싸고 세팅한 다이아몬드에 정직과 성실, 개방성과 열정, 아름다움과 힘, 부드러움과 신뢰, 확고함과 존경 등 부부가 지녀야 할 미덕을 담았고, 짝수로 세팅해 평등과 존중의 의미까지 반영했다. 6백10개 이상의 총 5.91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로 선보인다. 파리 출장을 떠나기 직전 루이 비통이 1천7백58캐럿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원석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운 좋게도 방돔 매장에서 그 원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 방언으로 '희귀한 발견'이라는 의미를 지닌 슈엘로(Sewelolo)로 명명된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352g, 크기는 테니스 공만 하다. 루이 비통은 다이아몬드가 발굴된 광산의 주인인 루카라 다이아몬드사(Lucara Diamond Corporation)와 마스터 다이아몬드 커터인 엔트워프의 HB 컴퍼니(HB Company)와 손잡고 이 희귀하고도 놀라운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변신시키는 유례없는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원석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맞춤 제작 다이아몬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카로웨 광산에서 채취하고 파리 방돔에서 디자인해 완성되는,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할 고객은 누구일까?



이카브에서 찾은 모던한 감성

파리의 아침, 부쉐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완이 완성한 8개의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를 만나러 부쉐론 방돔 부티크로 향했다. 광장이 흰하늘에 보이는 긴 창 너머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기분 좋은 햇살이 스며드는 26번지 부티크는 취향 좋은 어느 가족의 집 같은 인력함이 느껴졌다. 1879년 부쉐론에서 처음 선보인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는 매종의 절대적인 시그니처 컬렉션이다. 심플한 몸음표 실루엣에 연꽃, 포도송이, 양귀비 꽃잎, 그리고 뱀 모티브 등의 디테일로 볼륨감을 살린 오리지널 피스는 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비대칭 원형, 풍성함, 그리고 곡선을 둘러싼 디테일의 미학을 바탕으로 당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림같은 이 네크리스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착용하는 데일리 네크리스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파리지연을 위한 최고의 주얼리는 부쉐론이라 칭송했다고 한다.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지주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유연하고 심플하지만 열정을 가진 파리 여성들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 매종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감성과 표현의 아름다움까지 담아낸,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집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네크리스에 클레어 슈완은 어떻게 현대적인 감성을 접목했을까? 먼저 플럼 드 파옹 네크리스는 자연 모티브를 생동감 넘치는 형태와 유연한 움직임으로 구현해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로즈, 트리아앵글, 브릴리언트, 그리고 바케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움직임에 따라 각기 다른 각도로 화려한 빛을 발한다. 19세기 말에 사용하던 세팅과 조정, 금속 작업 기법을 그대로 재현해 만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깃

털 모티브는 분리해서 브로치로도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로 리에르 드 파리 네크리스는 에메랄드 세팅을 한 움직이는 나뭇잎 모티브가 포인트. 매종의 워크숍 기술을 보여주는 이 나뭇잎 모티브는 크고 작게 움직이는 잔물결의 효과, 배열, 볼륨까지 정확히 계산된 결과물. 여기에 클레어 슈완이 추구하는 극사실주의까지 더해졌는데, 마치 유럽 고택 벽면의 풍성한 당굴 한 부분을 떼어 온 듯하다. 이외에도 누아주 드 플레르 네크리스는 클레어 슈완의 말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선물한 꽃인 수국을 자개로 표현했고, 펠 네크리스는 환상적인 진주 드롭으로 순수한 느낌을 끌어올렸다. 피우 다강트 네크리스는 상징적인 장식 모티브를 격자 세공해 굴곡진 나뭇잎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건축물의 일부 같은 식물 모티브가 모던하고 창조적이다. 클레어 슈완이 재해석한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는 시그니처 컬렉션의 모던한 감성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발전된 기술적 전문성을 더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시대정신과 영원불멸의 정수를 결합하는 매종의 역량을 다시금 증명하기에 충분한 컬렉션. 다음 스케줄을 위해 총총걸음으로 부티크를 나왔지만, 여운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



8 에메랄드를 세팅한 나뭇잎 모티브로 장식한 리에르 드 파리 이어 컷. 9 다양한 버전으로 선보이는 플럼 드 파옹 네크리스 중 10.98캐럿 오벌 컷 버마산 사파이어를 세팅한 버전. 깃털 모티브는 분리해 브로치로 사용 가능하다. 10 매종 워크숍의 기술적 혁신을 증명하는 움직이는 나뭇잎 모티브를 세팅한 리에르 드 파리 네크리스. 11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퀘스천마크 펠 네크리스. 12 플럼 드 파옹 네크리스의 제작 과정. 13 수국 송이가 돋보이는 누아주 드 플레르 네크리스 스케치와 틀.



"부쉐론의 스타일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는 개인적으로도 부쉐론의 스타일을 가장 완벽하게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종에 합류한 시점부터 퀘스천 마크 네크리스를 부쉐론의 대표 시그니처 피스로 확립시키고 싶었습니다."
클레어 슈완(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왼쪽 위부터) 부드러운 옐로 벨벳 소재가 돋보이는 프레 비비에 듀오 롤리세 미니 백, 유려한 곡선 메탈 버클을 더해 모던한 감성을 살렸다. 3백20만원 **로저 비비에**, 카프 스킨에 마블 효과를 준 유니크한 메탈의 데이지 백,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클러치 백과 크로스 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3백12만원 **보타가 배너타**, 보는 이까지 기쁜 줄게 만드는 신뜻한 블루 컬러의 19 플랩 백, 햄 스킨으로 재질에 은은하게 빛나는 부드러운 외관이 특징이다. 골드와 실버, 두 가지 메탈 컬러를 적용한 스트랩으로 재미를 주었다. 5백66만원 **샤넬**, 송이자기족으로 재조된 견고한 실루엣이 고급스럽다. 자물쇠 형태의 잠금장치를 활용해 여닫을 수 있는 스몰 16 백. 4백70만원 **셀핀느 by 에디 슬리먼**, 부드러운 송이자기족에 레드 컬러를 적용해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30 플테뉴 백, 특유의 'CD' 잠금장치로 마무라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4백45만원 **디올**, 시링스러운 핑크 컬러를 입힌 송이자기족 쉐유 백, 길이 조절 가능한 가죽 스트랩과 짙은 체인형 톱 핸들 모두 탈착 가능해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다. 3백10만원 **펜디**.



my fair lady

세련된 안목과 고급스러운 취향을 만족시키는 뉴 클래식 백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두번 스가죽으로 코듀로이 효과를 낸 브리앙 미니 백, 앙증맞은 사이즈 덕분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6백24만원 **엘보**, 울 펠트 소재로 실용성을 강조한 바킨 36 백, 핸들과 플랩에는 특유의 스웨이드 카프 스킨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1천4백37만원 **에르메스**, 바킨 백에 매치한 실크 소재 오 결음 맥스 트윙클 스퀘어 43만원 **에르메스**, 매끈한 송이자기족으로 완성한 스토리 백, 자석 버튼을 적용한 더블 플랩 잠금장치로 쉽게 여닫을 수 있으며, 고리 형태의 메탈 장식으로 이브닝 클러치 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2백78만원 **알렉산더 맥퀸**, 생생하게 수놓은 플로럴 임브로이더리 장식이 인상적인 바게트 백, 은은하게 빛나는 새틴 소재로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6백86만원 **펜디**, 차분한 디크 올리브 그린 컬러가 고급스러운 샬비 969 백, 질감이 살아 있는 리저드 가죽 가방 중앙에 얇은 체인 장식을 더해 포인트를 주었다. 9백20만원 **구찌**, 에디터 **이주이**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보타가 배너타 02-3438-7882 샤넬 080-200-2700 셀핀느 by 에디 슬리먼 02-549-6631 디올 02-3480-0104 펜디 02-2056-9023 엘보 02-3449-5916 에르메스 02-542-6622 알렉산더 맥퀸 02-2118-6171 구찌 1577-1921



SUPER STYLE

2020 봄, 여름 뉴 & 빅 트렌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모델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의상과 액세서리 모두 가격 미정 **베버리**.

(상) 블루 셔츠 1백20만원, 레더 스카트 3백50만원 모두 구찌, 그린 체인 백 가격 미정 **올레안가비나**.
(하) 살버 톱 1백40만원, 브라운 스카트 2백10만원 모두 구찌, 블랙 마이크로 백 3백20만원 **로저 비비에**.

네이버 재킷, 그레이 니트 톱, 브라운 팬츠, 블랙 톱금 슈즈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네이비 톤, 패턴드 와이드
팬츠, 핑크 클러치 모두 가격
미정 **샤넬**, 골드 스트랩 썬글스
1백39만원 **자간비토 로시**,
주얼 이어링 가격 미정 **주이 림**.



(왼쪽) 플라워 패턴 재킷,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알바리**,
(오른쪽) 블랙 톤 가격 미정,
플라워 프린트 스커트 1백38만원
모두 **블루마린**.



(왼쪽) V넥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
2백62만원, 스카트 1백89만원, **블랙 레더**를 가격 모두 **자정시**.
(오른쪽) 오렌지 블라우스 1백96만원,
데님 팬츠 1백14만원, 아이보리
레더 줄 1백35만원 모두 **자정시**.

블랙 니트 베스트 2백만원대,
옐로 패턴 셔츠 3백만원대,
패턴 스카트 3백만원대, 플라워
브로치 80만원대, 골드 후프
이어링 70만원대 모두 **루이비통**.



블랙 톱, 깃털 장식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른, 파이론 스트랩 핏프스
 1백29만원 **자간비토 로시**.



(왼쪽부터 순서대로) 블랙 재킷 3백20만원, 니트 보디수트 1백79만원, 레더 쇼츠 3백425천원, 베이지 레더 빅백 7백85만원 모두 **보태가 배너타**. 블랙 정프수트 가격 미정, 니트 보디수트 가격 미정, 살베 네크라스 가격 미정 모두 **보태가 배너타**.
 블랙 원 숄더 드레스 가격 미정, 베이지 백 8백66만원 모두 **보태가 배너타**. 블랙 트렌치코트 2백91만5천원, 네크라스 가격 미정 모두 **보태가 배너타**.

헤어 이광중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박화정, 배운영, 신원지, 정소현
 어시스턴트 김원민
 스타일리스트 차환석

드리스 반 노른 1644-4490
 루이 비통 02-3432-1854
 자황시 02-546-2790
 프라다 02-3218-5331
 자간비토 로시 02-6905-3690
 버버리 080-700-8800
 구피 1577-1921
 돌체앤가버나 02-2092-6643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말버리 02-3438-6140
 블루 마린 02-6905-3447
 보태가 배너타 02-3438-7682
 샤넬 080-200-2700(chanel.com)
 주미림 joomilim.com

pink forest

향긋한 꽃 내음 가득한 핑크빛 향수 컬렉션.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위부터) **클로에 로** 장미와 목련, 재스민의 풍부한 플로럴 향기가 오르모스와 만나 특 쓰는 듯한 청량감을 남긴다. 50ml 11만 6천원, 문의 080-850-0708 **샤넬 샹스 오 명드르** 부드러운 머스크와 은은한 재스민, 상큼한 자몽과 모과를 배합해 밝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상을 표현했다. 35ml 10만원, 문의 080-332-2700 **에르메스 트위틀리 데르메스 오 프와브레** 자유롭고 당당한 젊은 여성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향긋한 핑크 페퍼와 은은한 텐더 로즈, 매혹적인 파슬리가 어우러진 달콤 씩씩한 향. 50ml 13만6천원, 문의 02-310-5174 **디올 뷰티 미스 디올 로즈 앤 로지스** 싱그러움 로즈 향을 중심으로 달콤한 베리 노트와 만나고, 머스크 베이스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향. 50ml 12만4천원, 문의 080-342-9600 **입생로망 뷰티 롱 파리오 드 바르셀** 라즈베리와 스트로베리의 생기 넘치는 프루티 향을 시작으로 다부러, 피아니, 파슬리로 이어지는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 50ml 15만원, 문의 080-347-0089 **에디터 아우이**

꽃으로 향수를 담은 유리 보러 이터와 워터 탭을 10만원 내는 **오메이** by 더 리안산. 에르메스 향수 라인의 부두 클루에 2만5천원 **이벤드르프** by 더 리안산. 문의 02-531-2991



DIOR

(왼쪽부터) **디올 프레스티지 르 미아르로 케바아드 로즈** 노르망디 장미에서 피어난 로즈 드 그랑빌의 22가지 미세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핑크빛 미아르로 펠 1만7천여 개를 담은 젤 텍스처 크림. 충분한 진정·재생 효과를 갖춰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하거나, 입주위에 두세 번 슬리핑 마스크 대신 사용하면 피부가 건강한 빛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75ml 51만5천원, **디올 프레스티지 라 미아르로 펠 드 로즈** 1만여 개의 로즈 미아르로 펠을 함유한 산뜻한 텍스처의 오일 세럼. 마네발, 오메가 3, 비타민 E 등 20여 가지 미세 영양 성분을 깊숙이 전달해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목과 얼굴에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0ml 38만5천원, 문의 080-342-9600

LANCÔME

(왼쪽부터) **입술워 프레스스 셀 로즈 드름 나이트 팜플리 컨센트레이트** 스킨케어 세럼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순수한 골드 성분 피부 속으로 각질을 제거해 톤을 맑게 하고 골드 오일층이 장미의 영양 성분을 공급해 부드러운 피부결로 마무리한다. 15ml 1만5천원, **입술워 프레스스 셀 나우싱 앤 라미티에이징 로즈 마스크** 장미수와 꽃잎을 담아 은은한 향을 느끼며 수분 충전 및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젤 마스크. 눈가와 입술 주변에 얇고 목에 발라 10분간 흡수시키고 뒤이어 수분감과 탄력을 느낄 수 있다. 75ml 23만원, **입술워 화이트 아우리 세럼** 피부 재생력을 강화하는 화이트 로즈 추출물, ACTYL-C™ 화이트닝 성분을 함유해 피부 톤 정돈 및 색소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세럼. 30ml 39만4천원, 문의 080-022-3332

time to reflect

분별처럼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진귀한 성분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HANEL

(위부터) **수블리마지 렉스레 드 크림** 그린 다이아몬드 블리머 인티에이지에 특화된 능력을 발휘하는 바닐라 플라-폴리아의 활성 성분을 담은 고농축 트리트먼트 크림. 외부 환경의 공격과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재생·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제품으로, 피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게 도와준다. 50g 65만7천원, **수블리마지 렉스레 오일** 목적용에 시잔해 점차 녹아들며 얇고 부드러운 보호막으로 변하는 독창적인 텍스처가 특징인 골든 시어 포플러의 트리트먼트 오일, 바닐라 플라-폴리아 열매의 은은한 향을 더해 감각적인 스킨케어를 경험할 수 있다. 15ml 63만8천원, 문의 080-332-2700

LA PRAIRIE

(위부터) **셀룰라 다이아몬드 콤플렉스** 큐어 골드 데일리 스킨케어 세럼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순수한 골드 성분이 피부 속으로 즉각 침투해 주름, 탄력 손실, 색소침착 등의 고민을 해결하고 브라이팅, 주름과 피뮈겔 개선, 탄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30ml 93만5천원, **셀룰라 다이아몬드 크림** 브라이팅에 효과적인 세 가지 주요 요소, 액상 크리스탈, 수정 크리스탈, 및 반사 미세입자를 함유해 화사한 윤기를 부여한다. 그뿐 아니라 고유의 셀룰라 복합체가 피부 보호 능력과 자외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매일 아침저녁 세럼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면 더욱 좋다. 50ml 93만5천원, 문의 02-6390-1115 **에디터 이혜미**

heavenly rest

찌뿌드드한 몸을 나른하게 풀어주고, 편안한 향으로 지친 마음까지 다독여줄 입욕 제품.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쿠엘리온스 오드 투 마이 오이드** 스트레스 해소와 진정에 특효인 알랑요랑 향을 시작으로 치분한 샌들우드와 달콤한 바닐라로 이어지는 향. 230g, 9만5천원. **시슬리 라비아릴라이징 볼륨마이징 샴푸** 이몽에서 연상될 수 있듯, 비타민 B,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단백질, 카멜리아 오일 등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발 뿌리부터 끝까지 볼륨을 가득 채워준다. 상쾌로운 향은 기분 전환에도 적격. 200ml, 8만5천원. **볼리 1803 힐 베제갈 오일 #스워트 이몬드** 보습력과 진정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E, 단백질과 무지질 등 영양분이 풍부한 이몬드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 이몬드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영양을 공급해 지친 피부를 회복시키고, 피 땀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50ml, 4만8천원. **디올 뷰티 렉시 리퀴드 슝** 통창한 거품이 피부에 편안함과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하고, 피부를 갈색은 은관꽃의 향긋하고 상쾌한 향기가 오래도록 남는다. 350ml 7만9천원. **담티크 프리서스 오일 포 바디 앤 헤어** 싱그러운 아이리시와 버지니아 시더, 바타베르가 전하는 파우더리한 향이 특징이다. 이몬드 오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재생 효과를 선사하고, 천연 아로간 오일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보호해주며, 마카데미아 오일이 진정 효과를 발휘한다. 보다 크럼에 두 발을 정도 떨어뜨려 온몸을 마사지하면 피로 해소에도 그만. 125ml, 9만5천원. **룩시앙 코론 드 세렌이 메 달락심 비디 슝** 활력의 비올라 배합한 라벤더, 스위트 오렌지, 베르가모트, 제라늄, 민트인 등 다섯 가지 에센셜 오일을 담은 바누. 몽골공급한 바누 거품이 자극 없이 피부를 세정해주고, 은은하고 편안한 향을 남긴다. 200g 1만6천원. 에디터 **이주이**

all that cushion

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직접 사용해보면 브랜드별 쿠션 사용레이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클레오프 보매 레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800 식별처럼 겉이 하나하나 살아 있는 촉촉하고 밀링한 쿠션이 스킨케어 성분을 담은 파운데이션을 듬뿍 머금고 있다. 가볍고 투명한 피부 연출에 적합한 타입으로, 아무리 여러 번 덧칠해도 화장이 두꺼워 보이지 않아 만족스럽다. 12g 11만9천원. 문의 080-564-7700



랑콤 압쉬워 로즈 앰플 쿠션 컴팩트 #110 인티에이징 기능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쿠션.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미러 케이스에, 내장된 거울 역시 큼지막해 휴대용으로 인기가 높을 듯. 촉촉한 메시 타입 쿠션으로, 피부에 밀착되는 롱래스팅 포물러를 갖췄다. 13g 11만9천원. 문의 080-001-9500



메리타트 C+ SPF 50/PA++++ 힐피니서 쿠션 컴팩트 #화이트 플러스 로즈 미지 컬러 효과를 줄 수 있어 피부 표정으로 섀피 쿠션이라는 별칭을 지닌 제품. 쿠션과 파우더 모두 피부에 골고루 퍼져 촉촉한 텍스처를 위해 사용감이 극도로 부드럽다. 또 파우더가 포물러를 최소한으로 흡수해 고운 질감을 선사할 수 있다. 12g 8만2천원. 문의 02-3040-2752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인어 메쉬 쿠션 #2 핑크톤 패션 하우스의 노하우를 담아 이탈리아 고급 원사로 제작한 메시 패브릭 타입의 쿠션으로, 파운데이션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고분자 밀키 에센스를 함유해 촉촉함과 글로 효과가 남는다. 14g 9만7천원. 문의 080-022-3332



나스 네츄럴 레디언트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롱클램 밀도와 탄성이 높은 쫄쫄한 쿠션을 볼록 패브릭으로 누르면 적당한 양의 포물러가 묻어 나와 양 조절에 실패하지 않고 피부 화장을 완성할 수 있다. 케라틴과 지속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다크닝이나 무너짐 걱정은 없을 듯. 12g 6만9천원. 문의 02-6805-3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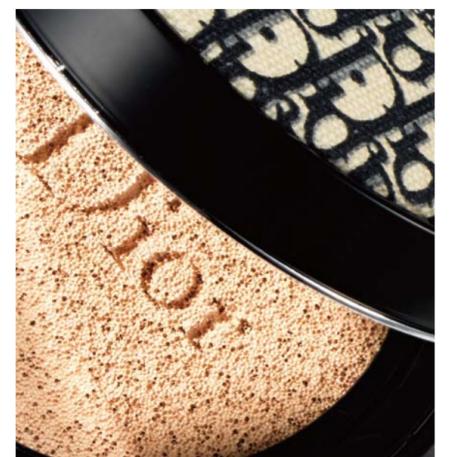
샤넬 르 발랑 블-업 로지 쿠션 정맛의 촉촉한 포물러가 바르는 즉시 피부에 은은한 광채를 더한다.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또는 수정 메이크업을 위한 터치업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11g 8만2천원. 문의 080-332-2700



시슬리 워터 볼륨 브라이트닝 안티블루 쿠션 파운데이션 #1 화이트 오팔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밀봉된 형태의 케이스로 위생 효과를 극대화했다. 수분감이 느껴지는 툭고 가벼운 질감의 포물러로, 허간 중앙의 버드를 눌러 원하는 만큼 파운데이션을 원뿔형 사용할 수 있다. 14g 13만9천원. 문의 080-549-0216



자방시명 꾸뛰르 쿠션 #C104 촉촉히 짙은 진홍처럼 보이는 메시 타입 쿠션. 피부에 얇고 가볍게 밀착되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데, 별도의 파니시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켈링을 정도다. 지성 피부에 추천한다. 13g 7만2천원. 문의 080-801-9500



디올 포에버 퍼펙트 쿠션 디올 메나리미티드 에디션 #1N 슬림한 케이스에 디올 하우스를 상징하는 오벌리크 패턴을 얹어 특별하다. 케라틴을 함유 디올 로고를 각인한 밀링한 쿠션이 얼굴을 드러내는데, 퍼프로 누를 때마다 청신 소리가 들릴 만큼 수분감이 풍부하다. 포물러를 펴 바른면 은은한 광채이 김들며 고급스러운 피부로 연출된다. 14g 8만5천원. 문의 080-342-9500 에디터 **이주이**

아이스크림 포스체
스타일링코드 00000000

editor's Pick

피부에 환한 빛과 생기를 선사해줄 스프링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뷰티 볼드 아 레브로 #2 노 모어 오아카즈 구찌 뷰티 에서 선드는 첫 번째 립 컬렉션 세 가지 중 밤 타임 립스틱이다. 그중에서도 이 컬러는 약간 분홍빛이 들지만 너무 여성스럽지 않고 에디터 입술 본연의 색매우 얇은 핑크가 합쳐져 자연스럽게 발색된다. 팔까지는 아이-아도 실컷 핑크는 느낌이 들 어 더 마음에 든다. 3.5g 4만8천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정미윤

프래쉬 슈가 카리멜 하이드레이팅 립밤 리미티드 에디션 즉각적인면서 지속적인 뛰어난 보습 효과로 꾸준히 사랑받는 립밤. 립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티투이스 트로 잘 알려진 미라 아리아와 협업해 8종의 카스타이아를 스티커를 함께 제공하는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천사, 달, 꽃, 알파벳 등 다양한 모티브가 들어 있어 원하는 방식으로 케이스를 연출하는 재미가 있을 듯. 6g 2만7천원. 문의 080-822-9500_by 에디터 이혜미

다미르 인파서블 부케 도 손 오 두왓셀 개발 또는 기분이나 옷 스타일에 따라 난 튜브형 패키지는 여성 가지 세이드와 동일한 향기가 특징이다. 알고 기법게 밀착되는 포물리는 작은 접시를 거기에 좋은 적당한 카바력을 갖춘 다. 은은한 윤광을 부여해 바르는 순간 피부가 고급스럽게 표현된다. 30ml 17만5천원. 문의 02-3479-6049_by 에디터 정미윤

재방송 핑 구찌로 시티 밤 #N200 파우치에 꼭 들어가는 크로 후대상이 뛰어난 튜브형 패키지는 여성 가지 세이드와 동일한 향기가 특징이다. 알고 기법게 밀착되는 포물리는 작은 접시를 거기에 좋은 적당한 카바력을 갖춘 다. 은은한 윤광을 부여해 바르는 순간 피부가 고급스럽게 표현된다. 30ml 17만5천원.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이혜미

에스티 로더 퍼펙션리스트 프로 래피드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 효도와 달달, 두 가지 발효 성분과 비타민 C를 함유해 미백 관리에 효과적이다. 투명한 에센스 제형이 산뜻하게 스며들어 지성 피부인 에디터 기증에도 합격. 얼굴에 발랐을 때 마치 수분 에센스를 바른 듯 촉촉한 보습감이 느껴지는 것도 마음에 든다. 50ml 16만5천원.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이주미

디올 아드리 스타일 클로소 #976 비디 스타 한층 통통한 스킨지 타입의 곡선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양 조절이 용이한 데다 입술 위에 한번만 톡톡 눌러 발라도 충분히 발색된다. 플러밍 제품 특유의 자극이 느껴지지 않고, 입술에 보호막을 씌운 것 같은 뛰어난 보습 효과를 지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출가 사용하게 될 듯. 6.5ml 4만4천원.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오버리스트 치크 팔레트 색조 팔레트를 구매하면 대개 한 가지 색상 정도는 마음에 들지 않기 마련인데, 나스 컬러 셀렉션은 늘 믿고 사는 편이다. 따뜻한 빛에서 영감을 얻어 구성된 여성 가지 하이아이드와 블러시로 보편적 메이크업부터 청순 가련한 메이크업까지 연출할 수 있다. 뭉침 없이 보이는 부드러운 텍스처도 만족스 라운 편. 4.5gx6 7만9천원. 문의 02-6905-3747_by 에디터 이주미

겔망 오가드 인파리얼 래디언스 세럼 스킨케어 루틴에 이 세럼을 추가한 후 한결 밝아진 피부 톤과 건강한 윤기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누리고 있다. 피부에 바른 순간 코팅을 한 겹 입술이 촉촉한 빛을 부여하는데,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용기는 재생 원료로 제작됐다고 하니 환경에도 착한 제품. 30ml 7만8천원. 문의 080-343-9500_by 에디터 이주미

클레도브 보베 라 크롬은 무엇보다도 무려 60여 가지 색분이 들어 있는데 백백하지 않고 가볍고 부드러운 포물리가 마음에 든다. 차가워도 또 모뎀이, 아침에는 빨리 발리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 더 순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로 페 이스 오일을 바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광이 나고 촉촉한 피부가 느껴졌다. 30ml 6만8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정미윤

상투키이 퍼펙트 블러 피니싱 파우더 특유의 들뜨는 듯한 느낌 때문에 피해왔던 파우더. 하지만 이 제품을 알게 되면서 파우더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했다. 훗 조나 피부 결정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얼굴에 적당한 광채를 돌게 하는 동시에 유평기도 잡아주어 오후만 되면 무너진 화장이 걱정없다. 파파넬, 인공 향료, 프탈레이트, 글루텐으로부터 자유로워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 8g 11만6천원. 문의 02-517-0902_by 에디터 이주미

수향 리미 컬렉션 #새리 한층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는 노란 민들레 꽃을 모티브로 삼은 한층. 핑크 자몽과 아이리스 꽃의 상큼한 향원으로 시 작해 달콤한 바닐라와 감각적인 사이프러스로 마무리되는 매력적인 향을 지녔다. 향을 피우면 맑고 상쾌한 에너지가 공간에 가득 찬다. 200g 5만5천원. 문의 02-516-5618_by 에디터 이주미

샤넬 기블라젤 샤넬 에센스 2017년 처음 선보인 대표적 향수를 보다 섬세하게 해 섰다. 향수를 뿌린 뒤 첫 느낌은 꽃향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부드러운 그 러스 투베르조즈 중심으로 재스민, 일랑일랑, 오렌지 블로섬 등 총 네 가지 플로 러 노트를 사용해 봄에 잘 어울리는 로맨틱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100ml 23만 9천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이혜미

리프리카인 스킨 화이트 케어 바이 에스티 로더아도네이 표창래 생는 자연스러 은 주름을 미화시킨 입자란. 깊은 눈가 주름과 디크서클은 자꾸 신경 쓰인다. 이 제품은 건조의 기본 원리에서 영감을 얻어 영양의 데미, 빛과 그라자, 곡선 표면 의 빛 반사 등 새로운 시각으로 는 주름을 접근한 결과물. 사용 후 10분후부터는 확실하게 어둡고 촉촉한 눈가 피부 톤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내장된 세 리믹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사지를 받은 패스 마사지를 받는 듯하다. 20ml 70만6천 원. 문의 02-511-6626_by 에디터 정미윤



SHOWROOM



프라다 2020 S/S 여성복 컬렉션 지난해 9월 말라노 에서 열린 프라다 2020 S/S 여성복 컬렉션 쇼는 단 순한 의상 소재를 넘어 여성의 힘과 패션을 포함한 스타일의 근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프라다는 이번 컬렉션을 통해 기본적인 요소와 브랜드를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디자인, 자수, 패턴, 색상을 선보였다. 문의 02-3218-5331

말바리 M 컬렉션 M 컬렉션은 제품 디자인, 소싱 및 제작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긍정적 변화와 책임 있는 브랜드 유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인 말바리 그로에서 영감을 프로젝트. 재생 나일론인 에코날과 지속 가능한 면 소재를 혼합해 새로운 기능성 패브릭을 개발했고, 이우터, 백, 유나섹스 액세서리 컬렉션, 3가지 수조 등에 적용했다. 문의 02-2018-1400

막스마라 2020 S/S 컬렉션 광고 캠페인 주목받고 증증하는 여성의 모습을 담아낸 막스마라 2020 S/S 컬렉션 캠페인은 스마트한 방식으로 적들의 행복 을 받아내는 스페이스를 주제로 했다. 포토그래퍼 스티븐 마이클이 촬영하고 톰 모델 지지 하디드, 아드리나 나리아, 이리나 시크, 조안 스톨스가 참여해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캠페인 이미지를 완성했다. 문의 02-511-3935

바버리 2020 S/S 컬렉션 광고 캠페인 2020 S/S 런 웨이 쇼를 장식한 벨라 하디드, 지지 하디드, 그리고 캔달 제나와 함께한 광고 캠페인은 사진작가 듀오인 이네즈 빈 램스워드와 비누스 마타단이 촬영한 이 미지와 영상으로 구성했다. 바버리 대표 칼라인 벨리 소자 등, 신중하게 디자인한 디테일은 매우 현대 적이다. 문의 02-542-6622

구찌 구찌 테스 1977 스키커즈 피렌체 구찌 거든에 전 시되어 있는 빈티지 수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스키 커즈 라인이다. 구찌 테스 1977은 로폼 스키커즈, 측면에 GRG 웹 스트라이프와 발등 위로 올라오는 구찌 테스 로고, 토 캡에 있는 GG 로고 엠보싱이 특징이다. 상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며 캐주얼하고 유행 넘치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 02-2056-0990

조이 그라이슨 시메라 솔다백 반달 형태와 스트랩을 연결하는 더블 디그 장식이 포인트인 시메라 솔다백



에르메스 워치 **아이스 스킨케트** 아이스 스킨케트 워치는 인제카 긴 듯한 스포츠 스파이아 크리스탈이 인상적이다. 케이스에 장착된 비대칭 형태의 등자 모양 러그와 질주하는 말을 연상시키는 기둥어진 숫자 등, 신중하게 디자인한 디테일은 매우 현대 적이다. 문의 02-542-6622

구찌 구찌 테스 1977 스키커즈 피렌체 구찌 거든에 전 시되어 있는 빈티지 수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스키 커즈 라인이다. 구찌 테스 1977은 로폼 스키커즈, 측면에 GRG 웹 스트라이프와 발등 위로 올라오는 구찌 테스 로고, 토 캡에 있는 GG 로고 엠보싱이 특징이다. 상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며 캐주얼하고 유행 넘치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 02-2056-0990

조이 그라이슨 시메라 솔다백 반달 형태와 스트랩을 연결하는 더블 디그 장식이 포인트인 시메라 솔다백

에르메스 워치 **아이스 스킨케트** 아이스 스킨케트 워치는 인제카 긴 듯한 스포츠 스파이아 크리스탈이 인상적이다. 케이스에 장착된 비대칭 형태의 등자 모양 러그와 질주하는 말을 연상시키는 기둥어진 숫자 등, 신중하게 디자인한 디테일은 매우 현대 적이다. 문의 02-542-6622

샤비르레 페라기모 질리오 향수 허우스 창시자 페라가 모가 1960년 출시한 질리오 향수를 좋아하고 현대적으 로 재해석했다. 질리오는 우드와 플로럴 노트를 통해 이 탈리아 꽃인 오리스의 향기를 미 세하게 느낄 수 있다. 안 젤라가 꽃의 싱그러운 향기와 달콤한 재스민 향을 부드러운 샌들우드, 베티베르, 파츨리 향에 녹였다. 문의 02-3430-7854

에스티 로더 퍼펙션리스트 프로 래피드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 효도와 달달, 두 가지 발효 성분과 비타민 C를 함유해 미백 관리에 효과적이다. 투명한 에센스 제형이 산뜻하게 스며들어 지성 피부인 에디터 기증에도 합격. 얼굴에 발랐을 때 마치 수분 에센스를 바른 듯 촉촉한 보습감이 느껴지는 것도 마음에 든다. 50ml 16만5천원.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이주미



BURBERRY
LONDON ENGLAND